

인재가 힘이다! - 리더십교육과정

우리 연구원은 훌륭한 인재가 최고의 자산이라는 생각 아래 2009년부터 장기적인 인재 개발계획을 세우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엄선해 시작해왔다. 교육과정은 크게 보면 리더십교육과 직무교육, 그리고 법정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



우주시대를 선도하는 최고수준의 천문우주연구기관을 목표로 하는 천문연의 인재상은 혁신을 선도하는 인재, 리더십을 갖춘 인재, 전문성을 갖춘 인재이다. 매년 전 직원 연찬회를 통해 핵심가치의 공유를 통한 소속감을 높이고, 리더십교육과 직무교육을 통해 인재개발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2009년의 직무교육은 기획력과정이었고, 리더십교육은 직급별로 나누어 갈등관리, 코칭리더십, 성과관리 리더십, 팔로워십, 셀프리더십 등의 주제와 다양한 특강으로 진행하였다.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연찬회와 직무교육, 리더십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과거에 강조되던 리더십은 다른 사람을 이끌어가는 능력이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카리스마, 힘에 의한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으로서 리더십이 이해되어 왔다면 요즘같이 인터넷이 보급되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한순간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세상에서는 리더십이란 나와 타인을 이끌어 가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제는 누군가를 강요하는 자가 아니라 누군가가 따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비전, 자신감, 자기관리, 도덕성, 과제 책임감, 의사소통, 타인 배려, 사회현신 등 리더십의 요소도 다양해졌다. 그에 따라 리더십교육도 매우 다양해졌다. 그중에서 우리기관의 올해 리더십주제는 '조직문화 활성화와 커뮤니케이션'이다. 한 조직이 작든, 크든 존재하는 불완전한 의사소통에 의한 갈등을 줄이고, 더욱 활기찬 직장생활과 직원들의 단합으로 조직문화를 활성화하고자 이번교육을 설계하였다. 작년과 다른 점이라면 올해는 직급으로 과정을 나누지 않고 내용은 동일하게 설계를 하고 3

회에 나누어 진행하여 직원들에게 선택권을 주었다. 올해의 리더십교육은 4월 12일부터 13일까지, 20일부터 21일까지, 26일부터 27일까지, 총3회, 1박2일로 덕산 스파캐슬에서 연구개발 인력교육원의 '찾아가는 교육과정'으로 진행하였다.

연세살인범 강호순의 자백을 이끌어낸 프로파일러의 설득의 기술은 무엇이였을까?

직장생활에서 중요한 능력 중의 하나인 대인관계. 원만한 대인관계를 위한 언어스킬, 말뿐 아니라 신체언어(표정, 몸짓)의 영향력, 같은 말이라도 말하는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상황 등을 알아보고 효과적인 설득방법, 상대방의 스타일에 맞춘 대화방법 등 '조직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주제로 공문선 원장의 교육이 이루어졌다. 작년의 설문결과를 반영, 교육 일정을 여유롭게 설계하여 교육 후, 휴식시간에는 자신의 기호에 따라 온천을 즐기거나, 주변 관광지를 다녀오거나, 운동을 하기도 하며 직원들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당신에게 있어 천문연이란?

"천문연은 내 인생의 사막이다! 왜냐하면 샘(오아시스)을 찾아가는 과정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우주천문기술개발그룹 이대희 그룹장 -

내가 일하는 일터, 한국천문연구원의 소중함과 의미를 한번 돌아보고 즐겁고 일하기 좋은 일터를 만들기 위한 방법을 고민해 보고 의논하는 시간을 가졌다. 일하기 좋은 일터에 관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Before & After의 상황을 연출하여 역할연기를 해보기도 하였다. 또한 윤복만 교수의 '행복한 직장 만들기'는 행복한 직장과 가정을 위해 우리가 평소 잊고 있었던 '웃음'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재치 있는 입담으로 교육생들에게 많은 웃음을 주셨다.

이번 리더십교육을 통해 교육이 딱딱하고 재미없다는 꼬리표를 떼고, 일상에서 작은 쉼표 같은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대전에서 진행되는 직무교육과는 달리 외부에서 진행된 리더십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화합과 재충전의 시간이 되었길 기대해 본다.